

대구신문

2006년 09월 13일 001면

대구경실련 “봉무단지조성 정보 공개하라”

속보= 봉무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운데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 아파트 건립이 가능토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본지 8,9일자 1면)이라는 대구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대구 경실련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통해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의 타당성 문제 등 봉무단지를 놓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빚어

졌지만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정보공개 청구마저 거부할 정도로 이 사업을 일방적이고 폐쇄적으로 추진해오다 이런 문제를 자초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포스코건설컨소시움의 사업계획서와 협약서를 비롯한 봉무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고 논란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박정우기자 park@idaegu.co.kr